

설 연휴 따뜻한 귀향길 지켜나선 이민경찰들



이민경찰 일터에서 12 번째 음력설을 보내는 갈문영

설날그믐날, 등불로 장식된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은 명절 분위기가 짙었다. 이날 연길출입국변방검문소의 경찰들은 해외관광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일터를 굳건히 지켰다. 그들 중에는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경찰관도, 신입 경찰관도 있었으며 광범한 해외관광객들을 위해 개인의 행복마저 선포 '희생'한 부부도 있었다.

“려객님, 셀프 통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장님, 이 관광객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OZ351 항공편이 순조롭게 착륙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절실한 승객들은 크고 작은 짐가방을 들고 룡숙 입국대기구역에 들어섰다. 대기 구역의 안내사업을 책임진 림성서는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했다.

‘00 후’ 신입 경찰 림성서는 두달전 입사했다. 음력설 근무는 물론 고향을 떠나 직장에서 음력설을 보내는 것도 처음이다. 가족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은 감격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직장에서 설을 쇠게 되니 더욱 흥분되고 설렙니다. 관광객들이 우리의 사업을 인정해줄 때 특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민관리경찰로서 내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굳은 의지가 력력했다.

녀경찰의 굳건한 수호

“입국 신고서 정보를 보완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입국장 반대편에서 경찰 갈문영은 한국어로 능숙하게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했다. 근무 년한이 15년 되는 갈문영은 이민경찰 일터에서도 이미 12 번째 음력설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 나라의 무비자 확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길림성의 빙설관광경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음력설 기간 독특한 민족색을 지닌 연변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림의 빙설문화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목적지로 떠올랐다. 따라서 외국어 핵심 인력인 갈

문영은 올해 음력설에도 자신의 일터를 굳건히 지켰다.

갈문영은 틈틈이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고 세 아이는 앞다투어 엄마에게 사랑을 표했다. 비록 가족과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관광객들이 순조롭게 입국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일터를 지키는 의미가 더욱 뚜렷해짐을 느꼈다.

경찰 부부의 남다른 음력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려권검사소에서 근무 2팀 경찰 장중우는 려권을 받아 조사 및 정보를 입력하고 도장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모든 절차를 빈틈없이 수행했다.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전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장중우와 그의 아내 가사정은 모두 연길변방검문소의 일선 경찰이다. 설날그믐날, 장중우 부부는 애들을 이웃에 맡기고 함께 일터로 향했다. 장중우는 려권검사소에서 능숙하게 관광객의 입국 절차를 처리하고 근무 3팀 경찰인 가사정은 출국 현장에서 바빠

움직였다. 두 사람은 근무종이라 끼니도 바쁘게 간단하게 때웠지만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찼다.

“우리 부부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설을 보낼 수 없지만 근무중 시간을 내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장중우는 자신의 도시락에 든 소고기 한조각을 집어 아내 앞에 놓았다. “명절이면 바쁩니다. 국경을 지키는 이민관리경찰로서 우리 가족의 ‘작은 리벌’로 더 많은 가족의 재회를 가져올 수 있어 뿌듯합니다.”라며 가사정은 남편을 보며 웃었다.

장중우, 가사정 부부는 고향이 모두 타성에 있다. 사업으로 인연을 맺은 이들은 연길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근무팀에 속하기에 그들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은 항상 엇갈린다. 동료들은 그들을 두고 ‘백메터 떨어진 장거리 연애’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중우, 가사정 부부에게 있어서 경찰복은 책임과 헌신을 뜻하며 경찰 ‘커플룩’은 이들에게 남다른 량만을 부여하고 있다.

/ 오건기자

/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근무 3팀 경찰관 가사정과 근무 2팀 경찰관 장중우 부부

사평, 금연환경 조성하여 건강한 가원 가꾸다

‘공공장소 금연의 달’ 문명실천활동 전개

사평시는 도시 문명 건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문명하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양성하도록 인도하며 전 성의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고 문명활동 달마다 진행’ 도시 문명 건설 활동 배치에 따라 연일 ‘공공장소 금연의 달’ 선전 및 건강 무료진찰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시민들을 위해 건강, 청결, 금연의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했다.

“흡연은 흡연자의 신체건강에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은 또 타인의 신체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기에 모두들 흡연의 위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사평시중심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사평시 철서구 북구가두 북구 사회구역 세시대문명실천소를 찾아 주민들에게 흡연의 위해성을 선전하고 건강 무료진찰을 진행했으며〈사평시문명행위촉진조례〉선전책자를

배포했다. 호흡기와 전문가는 ‘문명한 사평인이 되고 공공장소의 금연행동에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강연을 했다. 강연은 통속적이고 리해하기 쉬운 말로 흡연이 호흡기, 소화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및 그로 인한 질병에 대해 설명하고 음식, 약리 등 면의 지도 건의를 제공하였으며 건강 리념을 수립하고 문명행위를 실천할 것을 많은 주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이어 의료일군들이 주민들에게 건강 무료진찰 봉사를 제공했다. 상담을 받으려 온 주민들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의료일군들의 세심한 봉사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인정을 받았다. 한 주민은 “방금 남편과 함께 혈압과 혈당을 측정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면 항상 기침을 한다고 말하자 의료일군들은 곧바로 병력과 건강 상태를 물었다. 그리고 목적성 있게 과학적인 건강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하여 쌍로시 세시대문명실천중심에서는 세시대문명실천소, 세시대문명실천역을 조직하여 사회구역에서 ‘공공장소 금연의 달’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자원봉사자와 사회구역의 관련 사업일군들은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태우는 것은 담배이지만 소모하는 것은 생명입니다.”라는 금연선전물을 여러 단지의 공시판과 뚜렷한 위치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흡연과 간접흡연의 위해를 선전했다.

금연환경을 건설하는 것은 인민대중들의 신체건강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명위생 정도의 구현이기도 하다. 담배 통제와 금연 호소를 한 후 사평시의 여러 단위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신농그룹은〈금연단위 창건 실시방안〉을 제정 하달하고 금연단위지도소조를 설립하고 금연감독원을 설치하며 금연 표지를 붙이는 등

방식으로 금연단위 창건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했다.

“우리는 광범하게 선전하는 동시에 층층이 시달을 구체화하고 일상 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장소의 담배 통제와 금연이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힘을 다하고 있다.”고 신농그룹의 관련 책임자가 전했다. 신농그룹은 기관과 산하 3개 병원 화장실에 적외선 감지 음성 안내기를 설치하여 연기를 감지하면 인자 금연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통제 및 금연 선전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람마다 담배 통제 활동에 참여하여 금연 건강 환경을 창조하자’는 이미 시민들의 보편적인 공감대로 되었고 공공장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량호한 금연 분위기를 형성했다.

/ 길림일보

출산보험에 관해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

◇ 출산보험은 고용단위 및 그 종업원을 포함하며 고용단위가 비용을 납부하고 종업원 개인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종업원을 고용하고 모집할 때 남녀를 막론하고 출산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 출산보험이 보장하는 대우에는 출산의료비용 대우와 출산수당 두가지가 포함된다.

◇ 출산보험이 보장하는 출산의료비용에는 출산전 검사, 임원분만과 계획출산의 의료비용이 포함되며 녀성종업원의 출산 관련 검사비, 출산비용, 수술비용, 임원비용과 약값 등은 출산보험기금에서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 출산보험의 출산수당 대우는 바로 출산휴가 로임이며 녀성종업원이 출산휴가로 일터를 떠난 기간에 지급하는 경제 지원이다. 사실상 로임수입의 대체로 종업원이 소재한 고용단위의 전해 종업원 월평균 로임에 따라 지급한다.

◇ 국가의료보장국은 새로운 업체, 경제 발전에 적극 적응하고자 조건이 구비된 지역을 인도하여 유연취업자를 출산보험 범위에 포함시키고 종업원의료보험에 가입시키는 동시에 비용을 납부하여 출산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유연취업자는 규정에 따라 출산의료비용과 출산수당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 출산보험금은 실업보험기금에서 대납하고 개인은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출산하거나 임신 중지한 경우 규정에 따라 출산의료비용과 출산수당 대우를 향수한다.

◇ 출산보험은 고용단위와 종업원을 포함하며 미취업자는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출산 시 관련 의료비용은 출산보험기금이 아닌 주민의료보험기금에서 규정에 따라 보장받는다.

/ 중국청년넷

음력설 기간 환경위생 보장

음력설 연휴 기간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제설, 거리 청소, 쓰레기 운반 등 여러 면의 세밀한 배치를 통해 명절 기간의 환경위생을 힘써 보장했다.

명절 기간의 쓰레기량 급증에 대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63대의 쓰레기 수거 차량을 전문조작일군을 배치하여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하도록 함으로써 쓰레기 수거 빈도와 강도를 높였다. 또 환경미화원 280명을 대기시켜 명절 기간에 매일 깨끗이 청소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쓰레기가 곳곳에 쌓이지 않고 쓰레기통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보장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음력설 기간 도합 4,071만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눈이 내리면 즉시 제설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고능률적으로 집법일군들과 환경미화원들을 조직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음력설 연휴 기간 눈이 내린 후 즉각 연길시의 30개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정밀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교통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확보했다. 음력설 연휴 기간 제설차량

◇ 출산보험과 기본의료보험 목록은 일치하다.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 약품 목록 및 기본의료보험 의료용 소모품과 의료봉사 항목의 범위를 집행한다.

◇ 2023년부터 국가의료보장국은 보조생식항목 의료보험 진입 정책을 조절하고 의료봉사 가격 항목 립건을 규범하며 여러 성들이 지속적으로 사업 강도를 높이고 점차 적합한 보조생식항목을 절차에 따라 의료보험 결산에 포함시키도록 인도했다.

◇ 보험에 가입한 녀성종업원은 출산후 규정에 따라 출산수당을 바로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고 의료보험 처리기구는 신청을 접수한 후 10일 근무일내에 처리해야 한다. 일부 지역은 업무처리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녀성종업원이 지정 의료기구에서 직접 출산의료비를 결산한 후 출산수당 신청 업무 절차가 자동적으로 가능되고 출산수당 심사 및 지급이 완성된 후 문자를 받는다.

◇ 출산수당을 신청 및 수령할 경우 절대다수 지역은 신분증(또는 사회보장카드 또는 의료보험전자증명)과 진단증명(진찰)/퇴원(입원)기록만 제공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재단위의 은행구좌와 개인구좌를 제공하고 결혼증, 출산봉사증 등 기타 불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보험가입취급기구의 요구에 따라 보충 자료를 제공한다.

◇ 출산수당을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데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정이 없으며 각지는 실제 상황에 따르거나 성 또는 지구급시를 단위로 문건을 발표하여 지급대상을 명확히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3분의 2의 지역에서 단위에 지급된 후 다시 단위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며 3분의 1 지역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 중국청년넷



음력설 기간 제설작업에 한창인 종업원들

연변조선족자치주총공회는 2월 9일(정월 12일)부터 13일(정월 16일)까지 연변로동자문화궁에서 제3회 정월대보름 등불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활동은 전통문화를 고양하고 중화미덕을 전승하며 소비 열풍을 일으키고 관광경제를 조력하며 광범한 종업원, 군중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경사스럽고 문명적이며 평화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정월대보름 등불축제는 ‘중화민족은 한가족,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전진’을 주제로 여러가지 흥미로운 활동들을 준비했다. 전통 등불축제, 수수께끼 맞추기, 영화 관람 등 활동 외에도 킬링체험구역, 조선족전통웃놀이구역, 시사(诗词)구역, 사진촬영구역 등 구역을 새롭게 증설했다.

주총공회와 주부녀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음력설 장터’(年货市集)도 함께 개장할 예정이다.

료해에 따르면 주총공회의 조직과 호소하여 음력설 기간 전 주 여러 기업사업단위에서는 여러차례의 초롱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각 기업사업단위의 종업원들은 각자의 업종 특색과 결합하여 다양각색의 정월대보름

초롱을 제작했다. 세시대 여러 민족종업원들의 지혜와 창의성을 담은 초롱들은 문화바탕을 보여주고 특색민속을 구현한 동시에 연변의 경제사회발전 성과를 초롱 속에 융합시켜 새로운 시대 내포를 부여했다. 이번 정월대보름 등불축제에 종업원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초롱 300여개가 전시될 예정이다.

/ 연길뉴스넷

연변주총공회 제 3 회 정월대보름 등불축제 개최

2월 9일부터 13일까지